아시아예술극장 9월 개관…미리보는 3國 무대

광장 위 침대 함께 누워요

아르헨 '내 곁에 있는 모든 것' 6월 14~19·24일

9월 4일 문을 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아시아예술극장은 아시아 동시대 공연예술의 허브를 꿈꾸는 공간이다. 9월 4일부터 21일까지 계속되는 개관 페스티벌에는 대만의 영화감독 차이밍량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30여개 작품이 선보인다.

아시아예술극장은 개관 축제 전 시민들에게 동시대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개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 공연 작품 세 편을 선보인다. 모두 무료로 진행되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인당 두장씩 예매 가능하다.

오는 6월 14~19(오후 6시~8시)일과 24일에는 관객 참여형 공연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이 공연된다. 침대 하나, 여배우 한 명, 그리고 그녀와 함께 이불을 덮게 될 한 명의 관객이 만들어가는 작품으로 금남로 등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가장 은밀한 공간인 '침대'를 공공 장소로 옮겨와 관객 한명이 10분 정도 함께 펼치는 공연이다. 도심, 바닷가, 숲속 등 다양한 공간에서 관객들을 만났던 작품이다.

아르헨티나의 연극 연출가 페르난도 루비오는 지난 3월 호남대학교 미디어영상공연학과와 워크숍을 진행했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정은희, 김성숙, 기춘희, 정효진, 한지혜, 조혜수, 정유정씨가 출연한다.

오는 7월 4일 오후 2시에는 임민욱 작가의 '내비게이션 ID - X가 A에게'가 시민들을 만난다. 비디오와 퍼포먼스, 오브제 설치 등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작업을 해온 임씨의 이번 작품은 한국전쟁 전후 군경의 민간인학살 현장을 재조명하고 있다.

전쟁 후 민간학살 재조명

임민욱 영상작 '내비게이션…' 7월 4일

무료 공연…인터넷 예매

작품은 광주오월 어머니들이 함평, 진주, 경산의 민간인 학살 현장과 유해 발굴지를 방문하는 여정을 담은 영상물로 아시아예술극장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공동제작해 지난해 비엔날레 기간 중 관객을 만났다.

7월 4일(오후 6시30분)과 5일(오후 3시)에는 프랑스의 연출가 요리스 라코스트가 참여한 '작품번호 2번-말들의 백과사전'이 공연된다.

작품은 스포츠 해설, 자크 라캉의 강의, 에미넴과 릴 웨인의 랩, 자동응답기에 남겨진 메시지, 무당의 주문, 카페에서 녹음된 일상적인 대화 등 '모든 형태의 발화된 말'을 탐구하는 예술 프로젝트다. 요리스 라코스트는 800여가지 사운드 자료를 바탕으로 음악, 퍼포먼스, 쇼, 게임 전시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선을 행하는 말,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하는 말, 싸우는 말, 혁명하는 말, 위안하는 말, 춤추는 말과 사랑을 나누는 말 등 다양한 말이 5명의 퍼포머의 입을 통해 공개된다.

공연 후에는 아티스트와의 대화도 마련돼 있다.

善·공포·혁명…5개의 입

프랑스 퍼포먼스 '…말들의 백과' 7월 4·5일

한편 2015년 10월~11월, 2016년 3월~5월 시작되는 시즌 공연 '아워 마스터'를 미리 만날 수 있는 '아워 마스터 : 프리뷰'행사도 마련된다. '아워 마스터'는 20세기 공연 예술사에서 가장 큰 파장으로 이어진 변혁의 순간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프리뷰 행사는 오는 6월17일부터 8월26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격주 수요일마다 진행된다.

로버트 윌슨과 필립 글라스의 '해변 아인슈타인' 등을 만날 수 있다. 예술극장 홈페이지에서 120명 선착순 모집한다.

아시아예술극장 홈페이지(asianartstheatre.kr) 최근 행사 일정에서 예매하면 된다. 문의 062-410-363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3인조 빅밴드와 재즈 '빅재미'

'순수' 13일 양림동 우월순 사택

영화 '위플래쉬'를 본 사람이라면 빅밴드의 웅장한 사운드를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위플래쉬'에서 강한 인상을 줬던 음악 중 하나인 '카라반'을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23인조 빅밴드 사운드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문화예술 그룹 '순수'는 오는 13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우월순 선교사 사택 뜰에서 '빅밴드와 함께 하는 초여름 재즈 향연' 행사를 진행한다.

'2015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에 선정된 '순수'는 오웬기념각 등 남구 양림동의 역사문화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재즈 공연이 열리는 곳 역시 광주를 대표하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아름다운 건물과 주변 풍광이 인상적인 곳이다. 공연 중 미리 도착해 주변을 한바퀴 산책해도 좋을듯하다.

무대에 서는 재즈 빅밴드는 호남신학대 실용음악과 박수용 교수를 주축으로 여러 대학의 교수진들을 비롯한 전문 프로연주인, 정통 유학파 연주인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재즈, 팝, 가스펠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재편곡해 들려주며 레퍼토리 역시 관객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꾸몄다.

주요 레퍼토리는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치킨', 나탈리 콜의 '루트 66', 영화 '겨울왕국' 삽입곡 '렛 잇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의 '디스 이스 더 모먼트' 등이다.

무료 공연. 문의 062-651-09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녀' 보고 '그'와 얘기하고

광주극장 11일 신형철과 대화

광주극장이 개관 8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관객과 영화의 연대기' 6월 행사가 오는 11일 오후 7시 열린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이들이 추천한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씨네토크' 프로그램으로 이번 상영작은 독특한 멜로물 '그녀(her)'다.

2014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각본상 수상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가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 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존 말코비치', '어댑테이션'의 스파이크 존스 작품으로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으로 출연한다. 여주인공 사만다 목소리는 스칼렛 요한슨이 맡았다.

'그녀'

영화 상영 후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는 문학평론가 신형철(조선대 문창과 교수·사진)씨다.

오는 7월23일에는 장석원 전북도립미술관장과 함께하는 씨네토크 시간이 마련돼 있다. 상영작은 '베스트 오퍼'다. 티켓 가격 5000원.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 ·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9억(보 4.2억 월 1,34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흑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 /월170만(조정가)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륵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070㎡ 매 6억5천만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퇴직하신 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고창에 집짓기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완성된 그림 : 가로 85cm×세로 51cm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판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